

북한 여성의 삶을 역사화하기*

북한 여성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송현진**

이 글은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북한 여성사 연구 동향을 주제별로 살펴보고,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과제를 밝혔다. 북한 여성사 연구는 한국전쟁과 여성 경험, 여성의 노동과 직업 생활, 국가와 모성·재생산, 여성의 섹슈얼리티, 시대별 여성의 삶, 여성 교육과 조직 생활, 여성 지도자와 인물, 남북한 여성사 비교 등의 주제로 이루어졌다. 연구 방법적으로는 여성의 구술사와 담론 분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 학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의 장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 여성사 연구가 전체적인 편수도 적고 주제 또한 다양하지 못한 점, 북한 여성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이 빈약한 점, 제약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북한 여성사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 여성주의 관점에 기초한 북한 여성사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여성사 연구는 연구 주제를 보다 확대하고 이론과 연구 방법을 더욱 정교화해야 하며, 북한 여성 연구에서 여성사 연구가 한 분과로 안착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북한 여성사 연구의 성장을 위한 시론적 논의로, 앞으로 북한 여성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미하다.

주제어: 북한 여성사 연구, 연구 동향, 연구 성과, 연구 한계, 연구 과제

* 이 논문은 『2023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객원연구위원.

1. 서론: 문제 제기

이 글은 북한 여성 연구의 질적 성장과 함께 북한 여성사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지금까지 북한 연구는 정치, 경제 등 특정 주제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왔으며, 북한 여성 연구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북한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북한 여성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 여성사 또한 북한 여성 연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분단 이후 70여 년 간 진행된 북한 여성사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북한 여성 연구 내에서 여성사 연구의 위치를 가늠하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동안 여성사 연구는 서구에서 발원해 보충사와 공헌사를 거쳐 젠더사 단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 한국 여성사 연구도 보충사, 공헌사, 젠더사의 단계를 거쳤으며, 아직은 공헌사가 우세한 가운데 젠더사 연구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이다.¹⁾ 그렇다면 국내 학계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의 위치와 동향은 어떠한가? 북한 여성사 연구의 현황을 살피기에 앞서 그동안 진행된 북한 여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해 북한 여성 연구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북한 정권이 수립된 194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북한 여성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총 다섯 편이다. 임순희(1994)는 북한 여성 연구가 여성정책,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여성의 생활 실태 등을 북한의 여성해방적 시각에서 주로 분석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 이론을 바탕으로 한 학문적 연구 성과가 부족함을 지

1) 김정인,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한국여성학』, 제32권 2호(2016), 186~187쪽.

적하며, 남북한 이질화 극복을 위한 일환으로 북한 여성 연구가 중요하므로, 북한 여성에 관한 더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²⁾ 함인희(1998)는 북한 여성에 관한 연구를 ‘북한 여성 연구’로 규정하고, 북한 여성을 직접 다루거나 북한 여성의 삶과 관련된 주제로 판단된 연구를 모두 포함·분석하였다. 총 148편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가족(21%), 남북한 여성 및 북한과 사회주의권 여성에 관한 비교(19.1%), 여성정책 및 여성의 법적 지위(12.1%), 여성의 통일 의식과 남북 여성들 간의 교류방안(11.5%), 사회주의 체제의 여성 관련 이데올로기(8.3%), 여성의 일반론에 관련한 연구(6.4%), 여성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역할(5.7%), 여성의 경제 활동을 다룬 연구(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기별로 연구 주제가 변화하고 있는 점을 분석하여, 1970년대에는 북한 가족 연구, 1980년대는 북한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에 관한 연구, 1990년대는 남북한 여성 비교 연구와 통일 의식 및 남북한 여성 교류에 관한 연구로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연구 내에서 여성 연구의 주변화를 경계할 것과 북한 여성 연구의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을 확고히 정립할 것을 주장하였다.³⁾

또한 김원홍(1998)도 총 166편의 북한 여성 연구를 여성의 지위에 관한 연구, 통일 대비 여성 연구, 여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 여성 연구가 증가했지만, 제한적인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어 북한 여성 연구의 범위 확대를 제안하였다. 또한 북한 여성 연구의 방법이 북한의 1차 자료와 연구자가 발표한 2차 자료의 재인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⁴⁾ 김석

2) 임순희, “북한여성연구체험기: 북한여성 연구동향과 연구의 한계,” 『북한』, 제 269호(1994), 158~159쪽.

3) 함인희, “북한여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 창간특집호(1998), 41~51쪽.

향 외(2012)는 북한 여성 연구는 북한 내 여성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거나, 북한 여성의 삶을 주제로 한 학술 활동을 포괄한다고 규정한다. 1948년부터 2012년까지 발표된 북한 여성 연구물 총 182편의 시대별·주제별 동향을 살펴보고, 인식론과 연구 방법에 드러난 연구 쟁점을 분석하여 한계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북한 여성 연구를 여성 일반, 법·정책·제도, 가족, 지위 및 역할, 이데올로기·정치사회화·정치문화, 여성상·여성 이미지, 육아 및 보육, 남북한 여성의 교류와 통일, 건강과 보건·미용과 패션, 여맹 및 조직생활, 여성 경제 활동, 기타 등 12개 주제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여성 일반, 법·정책·제도, 가족, 여성상·여성 이미지 관련 연구물을 집중적으로 발표해 특정 주제에 집중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주제를 다양화·구체화할 것과 여성주의 시각을 활용하는 등 연구 방법도 다원화할 것을 제안하였다.⁵⁾

최근 발표된 조영주(2018)의 연구에서는 북한학과 여성학에서 진행된 북한 여성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의 여성주의적 개입 또는 비개입의 맥락을 분석하였다. 북한학에서 이루어진 총 837편의 논문 중 북한 여성 연구 자체를 다룬 글은 총 13편으로, 매우 적은 수의 연구물을 발표했다. 연구 주제별로는 연구 방법과 접근법, 시장화와 여성, 공식 담론에서 젠더가 동원되는 방식, 북한 여성 연구에 관한 연구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적 측면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증가에 따른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한 연구, 북한 담론과 매체를 분석한 연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⁶⁾ 한편 여성학 분야에서는 총 772편의 논

4) 김원홍, “북한여성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정정(政正)』(서울: 건국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 1998), 99~102쪽.

5) 김석향·이은주, “북한여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 (2012), 229쪽.

문 중 북한 여성 연구 자체를 다룬 글은 총 14편으로, 매우 적은 수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⁷⁾ 주제별로는 여성학이 지닌 학제 간 연구 성격에 따라 윤리와 법, 가족, 문학, 가요, 영화 등 다양한 주제와 접근법, 개념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여 북한 여성 연구의 주제와 접근 방법의 확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⁸⁾

지금까지 북한 여성 연구 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보면 북한 여성 연구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북한 공식 문헌 등을 통한 담론 분석이 많고, 여성의 경험을 활용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연구 주제를 어떻게 분류했는지를 보면, 북한 여성 연구 분야에 ‘북한 여성사’를 따로 분류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사 분야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북한 여성 연구에서 여성사 연구가 매우 미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서 북한 여성사 관련 논의가 진전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국내 여성학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한국 여성사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북한 연구의 성장과 함께 북한 여성사 연구의 결과는 어떤지 추적할 필요성을 느낀다.

북한 여성 연구가 보다 성숙하고 여성주의적 시각을 담은 방향으로

- 6) 1997년 창간된 『북한연구학회보』는 2017년까지 총 417편의 글을 수록했으며, 그중 북한여성 연구는 총 16편이다. 1998년 창간한 『현대북한연구』는 2017년까지 총 239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중 여성 관련 글은 총 5편이다. 2005년 창간한 『북한학연구』는 2017년까지 총 181편의 논문을 수록하고, 이 중 여성 연구는 총 3편이다. 조영주, “북한여성연구의 여성주의적 확장 가능성: 북한학과 여성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5집 1호(2018), 7~12쪽.
- 7) 여성학 분야에서 북한 여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 위해 여성주의 연구를 표방하는 전문 여성학술지 2종을 분석했다.
- 8) 조영주, “북한여성연구의 여성주의적 확장 가능성: 북한학과 여성학을 중심으로,” 12~16쪽.

나아가야 한다는 인식과 '북한 여성 연구 속 여성사'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하며 본 연구를 시작한다. 이 글의 목적은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후 그동안 국내 학계에서 이루어진 북한 여성사 연구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 동향은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시대별 현황과 함께 북한 여성사 연구에 활용된 연구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여성사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북한 연구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가 갖는 학문적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하며, 앞으로 북한 여성사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2. 여성사 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논의

여성사 연구는 '여성의 삶과 경험을 담은 여성사는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지닌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여성의 역사를 찾아내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출발한 여성사 연구의 제1기는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난 미국 여성해방운동의 영향을 받아 여성사를 통해 역사상의 성차별을 밝혀내고자 한 시기이다. 이 시기 여성사의 방향은 "역사에서 여성의 자리 되찾기"였으며,⁹⁾ 가부장제 피해자로서 여성의 억압을 규명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여성의 경험을 발굴·보완하는 보충사(compensatory history)와 여성의 기여를 밝히는 공헌사(contribution history)였다. 1970년대는 여성사 연구의 제2기로 희생자만이 아닌 적극적 행위자로서의 여성이 강조되어 여성의 문화와 노동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9) 천성림, "새로운 여성사: 쟁점과 전망," 『역사학보』, 제200집(2008), 138쪽.

루어진 시기이다. 제3기인 1980년대는 역사학 분야에서 여성사 연구가 정착한 시기이다. 이 시기 여성사 연구는 여성의 역사는 다양하며 여성의 경험은 계급, 인종, 민족, 종교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반화를 경계해야 하고, 여성은 역사에서 희생자가 아닌 적극적 행위자이며, 여성은 역사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자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¹⁰⁾

198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는 여성사 연구에서 젠더사(gender history)가 등장한 제4기이다. 그동안 여성사의 성장 이면에는 여성사가 여전히 주류 역사학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여성사의 게토화(ghettoization) 문제와 역사학계에서의 여성사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여성사의 주변화를 극복하고, 여성사를 이론적으로 무장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젠더사가 등장하였다.¹¹⁾ 조앤 스콧(Joan Scott)이 1986년 『젠더와 역사의 정치학』에서 ‘젠더가 역사적 변화 및 다양성의 분석에 유용한 범주’라고 제시하며 여성사의 이론적, 실제적 발전에 기여해 왔다.¹²⁾ 한편 여성주의 역사학자 중에는 남성 중심 역사서술을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젠더사의 강조가 중립화로 혼동되면서 여성주의 역사서술의 문제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는 흐름도 존재한다.¹³⁾ 거다 러너(Gerda Lerner)는 미래 세대가 ‘젠더 중립적’ 연구를 전개하더라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역사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얼마간

10) 위의 글, 138~140쪽.

11) 김정화,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 『역사와 세계』, 제34호(2008), 3쪽.

12) 조운 W. 스콧(Joan W. Scott),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성찰,” 배은경 옮김, 『여성과 사회』, 제13호(2001), 210쪽.

13) 정현백, 『여성사 다시쓰기』(서울: 당대, 2007), 52쪽.

이라도 ‘여성 중심적’ 역사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¹⁴⁾ 젠더를 여성사를 설명하는 중요한 범주이자 개념으로 사용하더라도, 여성사 쓰기에 여성 중심적 접근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¹⁵⁾ 이런 논쟁 속에서 젠더사는 여성사의 범위를 넘어 역사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역사학으로 자리하고 있다. 젠더의 시각은 여성사 연구에 널리 도입되었으며, 섹스와 젠더의 구분을 의문시하면서 둘 다 구성된 지식의 한 형태임을 인식하자는 관점이 등장하면서 섹스와 젠더라는 이분법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그동안 여성사는 연구 주제와 분야를 확대하고 이론적 단련을 반복하면서 성장해 왔고, 방법론적으로도 사료의 빈곤을 극복하려고 노력해 왔다. 여성사는 사회사의 영향을 받아 인류학, 사회학 등의 방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전통적 문헌자료 외에 실지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한 구술 자료와 일기, 소설, 영화 등을 새롭게 탐색해 사료의 범위를 확대해 왔다. 따라서 여성사 연구는 담론 분석, 텍스트 분석과 함께 구술사 방법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구술사는 여성주의적 역사 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재한 여성의 기록을 생산해 사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하고, 무엇보다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¹⁶⁾ 이재경(2012)은 여성주의 인식론이 연구 방법으로서 구술사와의 친화성을 갖는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14) 거다 러너(Gerda Lerner), 『왜 여성사인가』, 강정하 옮김(서울: 푸른역사, 2006), 309쪽.

15) 정현백, “‘여성사 쓰기’에 대한 (재)성찰,” 『역사교육』, 제102집(2007), 177~178쪽.

16) 김은경,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과 역사』, 제19집(2013), 127쪽.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들로부터 풍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구술사를 선택한다. 둘째, 구술사 방법은 구술자를 인식의 주체적 위치에 놓고, 구술자의 주관적 경험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인식론과 만난다. 셋째, 구술사 방법은 실증주의적 객관성을 지양하여 사실적 진실이 아닌 서사적 진실을 강조한다. 넷째, 구술사와 페미니즘은 모두 개인적 경험에 바탕을 둔 지식의 생산을 중요시한다.¹⁷⁾

여성사는 ‘여성을 다루는 역사’로, 배제된 여성의 역사를 보충하거나 역사에서 여성들의 공헌을 밝히는 것, 여성해방을 주장하는 것,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 다양한 여성의 일상생활을 서술하는 것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다. 여성사는 남성의 기준으로 서술되어 온 역사를 여성의 시점으로 다시 쓴다는 점에서 새로운 역사학이고, 남녀평등을 실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역사학이다.¹⁸⁾ 지금까지 연구 주제, 이론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비약적 발전을 해 온 서구 여성사와 달리 북한 여성사 연구는 이제 태동기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는 역사의 주체였던 북한 여성의 삶을 역사화한 연구, 즉 ‘북한 여성의 역사를 다루는 연구’로 규정한다.

17) 이재경,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 이재경 외 지음,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서울: 아르케, 2013), 14~15쪽.

18) 천성림, “새로운 여성사: 쟁점과 전망,” 131쪽.

3. 북한 여성사 연구의 동향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북한학과 여성학, 역사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학술지가 24편으로 가장 많고, 학위논문 5편, 단행본 2편 등 총 31편의 결과물이 나왔으며, 저자가 속한 학계별로는 북한학 연구자들의 연구가 15편, 여성학 연구자의 연구 6편, 역사학 5편, 사회학 3편, 교육학 1편, 사회복지학 1편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기별로 보면, 1990년대에는 역사학계에서 여성사 서술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1편이 나왔을 뿐이다. 북한 연구가 활발해진 시기이고 북한 여성 연구에서 여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상, 여성 이미지를 다룬 연구가 많이 등장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 여성사 연구는 아직 출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들어와 북한 이탈여성에 대한 구술사 등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 북한 여성의 노동, 집안일과 육아, 교육 경험, 다양한 삶을 주제로 한 연구 6편이 발표되었다. 가장 많은 연구물이 나온 2010년대는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 출산과 모성 경험, 시장화와 여성의 생존전략, 조직생활 등 보다 폭넓은 주제의 연구물 16편이 나왔다. 이처럼 2000년부터 2010년대는 남북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폭발적 관심과 북한 여성 연구자들의 등장에 힘입어 북한 여성 연구 또한 성장했다. 이에 발맞춰 북한 여성사 연구도 북한학을 비롯해 여성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여성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삶의 경험을 다룬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대에 들어와서는 김정은 시대 여성의 노동과 직업, 해외 파견 노동, 그리고 여성 지도자와 여성 영웅 등 인물을 다룬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의 장에서 꾸준히 북한 여성사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 점은 앞으로 북한 여성사 연구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연구 주제별로 보면, 여성의 재생산·모성(6편)과 여성 지도자와 인물(6편)이 가장 많고, 시대별 여성의 삶(5편), 한국전쟁과 여성 경험(4편) 여성의 노동과 직업 생활(4편), 국가와 여성 섹슈얼리티(2편), 여성 교육과 조직 생활(2편), 남북한 여성사 비교(2편)의 순으로 연구물이 나왔다. 북한 여성사 연구의 주제가 아직은 다양하지 않지만, 시기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일성을 비롯한 남성 인물 중심의 북한 현대사에서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북한 역사의 서술을 시도하고 여성의 공헌을 밝힌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전쟁의 경험을 증언해 줄 북한이탈여성이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에 관한 연구물이 나온 점도 성과이다. 70여 년에 걸친 북한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과 생존전략 등의 경험을 시대별로 담고 있는 연구물은 북한 여성사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기초자료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북한 여성의 노동, 교육, 조직생활, 섹슈얼리티, 모성과 재생산 경험 등의 연구물로 인해 북한 여성의 삶의 역사를 파악하고, 여성들이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순응하고 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살아냈는지 살필 수 있는 점도 성과이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는 구술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한 연구가 16편, 북한 문헌 등을 통한 담론 분석 연구가 8편, 면접조사와 담론을 통합 분석한 연구 5편, 증언보고서와 비교분석 각 1편이다. 특히 구술생애사와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북한 여성사 연구의 전망을 확대한 점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구술사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여성의 경험을 정당화하고, 세대가 다른 여성들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역사에서 배제된 여성

〈표 1〉 북한 여성사 연구의 주제별 동향

주제	연구 목록	연구 방법	연도	학계
한국전쟁과 여성 경험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담론분석	2006	북한학
	조영주,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되기”	구술생애사	2013	북한학
	안태운,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구술생애사	2014	여성학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	증언보고서	2021	역사학
여성의 노동과 직업 생활	박영자, “북한의 여성노동정책(1953~1980년대)”	담론분석	2004	북한학
	김화순 외, “첫 직장과 결혼”	면접·영화	2020	북한학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	구술생애사	2020	북한학
	이지연, “초국적 공간에서 북한 여성의 노동과 재현의 정치”	심층면접	2023	여성학
국가와 모성·재생산	곽수진, “북한 여성의 출산 경험연구”	심층면접	2014	북한학
	김영선, “1960~70년대 북한의 재생산 정책과 젠더의 문화정치”	면접·담론	2014	여성학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면접·담론	2016	북한학
	김경희 외,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면접·담론	2016	사회학
	조영주,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전략과 담론적 수행: 어머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구술생애사	2015	북한학
	김현아,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실천 연구”	심층면접	2019	북한학
국가와 여성 섹슈얼리티	권금상,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면접·담론	2015	북한학
	권금상, “규범에 경합하는 북한여성들의 성적 실천”	구술생애사	2016	북한학
시대별 여성의 삶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	구술생애사	2001	사회학
	조영주,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	심층면접	2012	북한학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심층면접	2015	북한학
	안태운, “한 엘리트 북한 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 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 전략”	구술생애사	2015	여성학
	안태운, “전후 북한 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구술생애사	2016	여성학
여성 교육과 조직 생활	안재희·민무숙, “탈북여성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의 교육경험 분석”	심층면접	2003	교육학
	양옥경 외, “지역사회 복지자원으로서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원 역할의 가능성 탐색”	심층면접	2018	사회복지학

여성 지도자와 인물	김도형, “북한의 여성과 여성 혁명가에 관한 이미지 연구”	담론분석	2020	역사학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담론분석	2016	역사학
	송현진, “북한 모성영웅의 등장 배경과 의미”	담론분석	2021	북한학
	송현진, “김정은 체제 ‘여성영웅’ 정치의 유형과 특징”	담론분석	2021	북한학
	신유리·권경미, “허정숙 다시 보기: 북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담론분석	2021	역사학
	최진이, “북한 여성시인 럽형미 연구”	담론분석	2006	여성학
남북한 여성사 비교	이배용, “여성사 서술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비교분석	1997	역사학
	윤택림·함인희,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의 이해: 집안일과 육아를 중심으로”	구술생애사	2005	인류학 사회학

자료: 저자 작성.

들의 뿌리를 발견하고, 여성의 역사가 지속되게 한다.¹⁹⁾ 북한의 대중매체, 영화, 문학 등의 자료가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기에 역부족인 점과 북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여성이 자신의 역사를 들려준 것은 북한 여성사 태동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역사에서 여성들의 공헌을 밝힌 지도자와 인물 연구는 모두 담론 분석으로 이루어졌다. 주제의 특성과 북한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점에서 북한 자료를 통한 담론 분석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1) 한국전쟁과 여성 경험

그동안 전쟁은 남성의 세계라는 가부장적 인식이 한국전쟁과 관련한 연구에서 여성을 배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영자(2006)는 전쟁 중 북한 여성들이 무엇을 했는지, 북한 정권이 여성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19) 이재경, “여성주의 인식론과 구술사,” 9쪽.

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전쟁 속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북한 여성의 노동세계를 문헌분석 방법과 '전쟁의 희생자로서 여성이라는 논리'를 재고하는 관점에서 연구했다. 저자는 여성들의 전쟁 경험이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된 역사적 기점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⁰⁾

이후 2010년대 초·중반부터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새롭게 보려는 시도가 등장하면서 북한 여성이 경험한 전쟁에 관한 연구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조영주(2013)는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 북한 여성들이 전쟁 당시 어떤 위치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이후 북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을 정체화·인민화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분석했다.²¹⁾ 안태운(2014)은 북한이탈여성 7명의 구술사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전쟁 경험을 분석하고, 북한 여성에게 있어서 전쟁이 지닌 의미를 고찰했다. 북한 여성들의 전쟁 경험은 북한에서의 삶뿐 아니라 탈북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여성들이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선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²²⁾ 또한 김태우(2021)는 1951년 5월 국제민주여성연맹 한국전쟁 조사위원회 소속으로 열흘간 북한 지역을 조사한 외국인 여성들의 "우리는 고발한다"라는 보고서에 담긴 '북한 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을 서술하였다.²³⁾ 이 책에는 전쟁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줄 것을 호소하

20)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파괴와 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2006), 81쪽.

21) 조영주,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과 인민되기," 이재경 외 지음, 『여성(들)이 기억하는 전쟁과 분단』(서울: 아르케, 2013), 161~162쪽.

22) 안태운,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0호(2014), 210~211쪽.

23)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파주: 창비, 2021).

한 여성들의 주체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며, 북한 여성들이 전시 성 폭력에 대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증언한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과 여성의 경험을 주제로 한 연구의 특징은 이 연구들이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북한 여성의 전쟁 경험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북한이탈여성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점차 줄어들고, 경험을 증언해 줄 북한이탈여성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북한 여성의 한국전쟁 경험에 관한 연구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전쟁 경험에 관한 연구가 부지런히 이루어져 전쟁과 분단이 북한 여성에게 미친 영향, 여성들의 다양한 전쟁 역사 등을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2) 여성의 노동과 직업생활

북한에서 여성의 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여성 노동자의 일과 직업생활 등 북한 여성의 노동 관련 연구는 2000년 초·중반 여성 노동정책 연구로 시작되었다. 박영자(2004)는 1953~1980년대 여성 노동정책을 여성의 노동계급화 정책과 양성 간 수평적·수직적 위계에 초점을 두고 분석했다. 북한의 여성 노동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증대시켰지만, 여성해방과 평등이 아닌 성별 위계를 초래했다고 저자는 밝히고 있다.²⁴⁾ 이후 여성 노동 관련 연구물이 나오지 않다가 최근에 여성의 노동과 직업생활 관련하여 몇 편의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24) 박영자, “북한의 여성노동정책(1953~1980년대): 노동계급화의 수평적, 수직적 위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2004), 157~158쪽.

먼저 김화순 외(2020)는 북한이탈여성 17명에 대한 사례면접과 영화 분석을 병행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전후해서 북한 여성의 직업생활과 진로 분화를 분석하였다.²⁵⁾ 이 연구는 북한 남성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분화된 세 가지 진로가 지속된 것과 달리, 여성들은 결혼을 기점으로 진로가 재분화되어 남녀 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정아(2020)는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을 바탕으로 김정은 시대 여성의 직업 선택과 공식노동 부문에서 일어나는 노동 양상을 탐색하였다. 미혼 여성들은 공식직장에서 일하기보다 시장 활동을 선호하고, 결혼 전 공식 직장에 다닌 여성들도 결혼 후 대부분 비공식 경제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저자는 경제난 이후 젠더화된 북한의 이중 노동구조가 공식노동 우위의 위계적 구조이지만, 주민들의 실제 삶은 대부분 비공식부문의 여성 노동을 통해 이루어져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평가한다.²⁶⁾ 한편, 이지연(2023)은 해외 북한식당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 6명을 인터뷰해 그들의 노동과 공연, 방문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탐색하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소수의 남성 지배인-다수의 여성 노동자’라는 가부장적 위계 구조하에서 일하고 있으며, 그들의 공연 노동은 전 지구적-서구적인 것과 구별되는 이질적-동양적인 미적 가치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북한 여성들은 젠더화되고 인종화된 타자로 자리한다고 밝히고 있다.²⁷⁾ 이 연구는 북한이라는 공간을 넘어 해외에 파

25) 김화순·안지영·함연희, “첫 직장과 결혼: 북한 여성의 직장진출과 진로분화,” 『통일인문학』, 제84집(2020), 184쪽.

26)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2020), 40~52쪽.

27) 이지연, “초국적 공간에서 북한 여성의 노동과 재현의 정치: 젠더, 인종, 계급의

견된 북한 여성의 노동 경험을 밝혔다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여성의 노동생활과 직업을 주제로 한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북한이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정책으로 내세워 여성의 노동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그에 비해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생활 관련한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는 점이다. 이후 더 많은 북한 여성의 다양한 노동 경험, 여성들이 생각하는 노동의 의미, 여성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다양한 진로와 직업생활 등 북한 여성 노동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 여성의 재생산·모성 경험

북한 여성의 모성과 재생산 관련 연구는 북한의 가족 연구에서²⁸⁾ 출발해 모성정책과 모성이데올로기, 모성담론과 재생산을 다룬 연구로²⁹⁾ 이어졌다. 초기에는 주로 담론 분석에 치중했다면, 차츰 모성과 재생산 경험에 대해 구술사적 접근을 하고 있다.

먼저 재생산 경험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광수진(2014)은 북한이탈여성 12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 여성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로서, 사회주의 인민으로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분석했다. 북한의 출산정책이 여성의 경험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교차와 ‘북한적인 것’의 구성,” 『한국여성학』, 제39권 1호(2023), 137쪽.

28)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29) 이미경,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조선녀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2004); 안지영,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 재생산’과 영화 속 모성담론,” 『여성연구』, 제88권 1호(2015).

임신과 출산을 국가와 사회, 남녀 공동의 책임으로 여기기보다 여성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있다.³⁰⁾ 김영선(2014)은 북한 여성의 재생산 경험과 출산전략을 북한 체제의 역사적 구축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북한 당국은 시대별로 출산장려정책-산아제한 정책-출산장려정책을 펼쳤으며, 여성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정책에 대해 순응과 전유·저항하였다.³¹⁾ 김석향과 박민주(2016)는 북한이탈여성의 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 여성의 재생산 경험을 분석했다. 북한 여성의 임신·출산 경험은 개인별로 고유의 스펙트럼을 지니며, 신분과 경제력에 따라 경험의 차이와 차등을 만들어 냈고, 이 과정에서 북한 여성들이 성별 불평등을 내면화 또는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처했다.³²⁾ 또한 김경희 외(2016)는 북한 이탈주민 11명의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아버지 담론과 모성 담론을 통해 가족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에게 전통적인 어머니, 아내, 며느리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가족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³³⁾

다음으로 어머니 경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조영주(2015)는 북한 이탈여성 3명의 구술사를 바탕으로 북한 여성의 어머니 되기 사례를 분석하였다. 3명의 여성은 각각 혁명적 어머니, 헌신적인 어머니, 보

30) 곽수진, “북한 여성의 출산 경험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6~69쪽.

31) 김영선, “1960~70년대 북한의 재생산 정책과 젠더의 문화정치,” 『여성과 역사』, 제21집(2014), 183~184쪽.

32)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3집 1호(2016), 99쪽.

33)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2016), 131쪽.

조적 역할의 어머니를 수행하였다.³⁴⁾ 김현아(2019)는 북한이탈주민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여 북한 여성의 모성이 고난의 행군, 시장화, 이주라는 국면에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탐색했다. 북한 여성은 시대에 따라 가부장제에 부합하는 어머니에서 자력갱생적 모성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전통적인 어머니와 경제적 부양자로서 어머니 사이를 넘나드는 새로운 모성으로, 탈북 후 북한에 남겨 둔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원거리 모성을 실천하고 있다.³⁵⁾

북한 여성의 재생산과 모성 경험을 다룬 연구들은 북한 체제의 역사적 변동 과정을 출산정책과 여성의 재생산 경험을 중심으로 젠더 시각에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모성이테올로기라는 강제적 담론을 통해 여성의 출산과 어머니 역할을 통제하고 있지만, 신분과 경제력 등의 환경에 따라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북한 여성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 모성을 실천하고 있는 점은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관계 변화뿐 아니라 국가와 여성과의 관계 변화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들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여성의 모성과 재생산 경험을 자료화해 경험과 담론이 만나는 지점을 더욱 풍부히 밝히기를 기대한다.

34) 조영주,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전략과 담론적 수행: 어머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2015), 309~338쪽.

35) 김현아,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실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75~182쪽.

4) 국가와 여성 섹슈얼리티

근대 이후 발명된 섹슈얼리티는 권력의 작동과 관계가 크다.³⁶⁾ 남한의 섹슈얼리티 연구는 주로 여성 섹슈얼리티 문제를 국가의 성 동원과 통제의 관점,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국가와 행위자의 권력관계 속에서 성매매 여성들의 실천에 주목한다. 반면 북한의 여성 섹슈얼리티를 다룬 연구는 권금상이 북한 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로 박사학위논문을 내놓고, 학술지 연구를 추가하면서 이제 출발했을 뿐이다. 권금상(2015)은 북한이탈주민의 심층면접, 북한 문헌을 바탕으로 북한 권력의 성통치와 이에 대한 여성 주체의 대응을 중심으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성통치는 남성 중심적인 성담론을 구축하였지만, 경제난이 기존 성문화에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당국의 성통치에 도전하고 해체를 시도하며 대응 방식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³⁷⁾ 또 다른 연구에서 권금상(2016)은 북한이탈여성의 구술 자료를 통해 일상에서의 성 경험을 파악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여성이 실천한 기존 규범에 경합하는 성적실천의 의미를 분석했다. 경제난 속에서 북한 여성들은 기존 규범에 맞서 새로운 생존전략으로 성적실천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³⁸⁾ 앞으로 북한 여성사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위해 이 주제의 연구가 더 풍부해지고 정교해지길 기대한다.

36) 김은경,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白熱化)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112쪽.

37) 권금상,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주체 간의 동학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38) 권금상, “규범에 경합하는 북한여성들의 성적실천: 고난의 행군 이후 일상에서의 성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0권(2016).

5) 시대별 여성의 삶

북한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으며, 북한 권력과의 관계에서 여성의 삶의 경험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담으로 북한이탈여성들의 구술생애사를 통해 북한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삶의 경험을 추적한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여성한국사회연구소(2001)는 북한이탈여성 14명의 생애사를 통해 북한 여성들의 삶을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연령, 학력, 출신 성분이 다양한 여성들이 북한 사회에서 살아온 과정을 담고 있다.³⁹⁾ 조영주(2012)는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이라는 박사학위논문에서 북한의 젠더레짐과 여성 경험을 시기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여성이 해방을 어떻게 경험하고 새로운 사회에서 어떻게 공민이 되어 갔는지,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는 공장에서의 성별분업구조와 가정에서의 이중역할, 1990년대 이후에는 경제난과 시장화가 젠더레짐에 대한 국가적 기획을 변화시켰음을 서술하고 있다.⁴⁰⁾ 또 다른 연구에서 조영주(2015)는 시장이 여성에게 경제적·문화적·사회적으로 변화를 만들어 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장 자체가 성별화된 특성으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장을 통한 여성의 다양한 실천은 북한 정권의 기획에 영향을 주고,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의 삶과 미래를 기획하고 규범에 도전하는 주체로 재구성하고 있다고 강조한다.⁴¹⁾ 안태윤(2015; 2016)은 북

39)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1).

40) 조영주,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99~150쪽.

41) 조영주,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2015), 95쪽.

한이탈여성의 구술생애사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을 분석한 연구물을 두 편 발표하였다. 식민지배하에서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을 경험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살다가 2000년대 초반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 여성들의 삶에서 드러난 생존전략과 선택 등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분단 체제하에서 북한 여성들이 경험한 삶과 체제에 대한 인식, 가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⁴²⁾

이 주제의 연구들은 70여 년에 걸친 북한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을 담고 있어 북한 여성사 연구 발전과 함께 한국 여성사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에 대한 정보가 빈약했던 시기에 다양한 여성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또한 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 시대에 걸친 여성들의 삶과 시장화 이후의 변화를 국가기획과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시대별로 더 다양한 여성들의 경험과 삶을 다룬 연구가 나와 역사 속 북한 여성의 삶을 발견하기를 바란다.

6) 여성 교육과 조직생활

북한 여성들은 어떤 교육을 받고, 조직 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까? 안재희와 민무숙(2003)은 북한 교육 연구에서 여성 문제의 누락과 북한 여성 연구에서 교육 관련 주제가 미흡한 점을 문제로 여기고, 북한이탈여성 23명의 면접을 바탕으로 북한 여성의 교육 경험을

42) 안태운, “한 엘리트 북한 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 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2권(2015); 안태운, “전후 북한 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제24권(2016).

분석하였다. 북한의 여성 교육은 교육의 기회와 과정, 교육 결과에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에 따른 역할 구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이런 교육 결과 여성은 남성과 다른 삶의 경험과 진로, 책임과 과제, 기회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형적으로 부과한다는 점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⁴³⁾ 양옥경 외(2018)는 북한이탈여성 10명의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여맹)에 속한 여성들이 지역사회 복지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분석하였다. 여맹원들은 체제 유지를 위한 동원인력이면서, 지역에서 고아와 노인 등의 생활과 주민들의 가정사를 돕는 복지 관련 활동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동안 정치적 조직으로만 소개되었던 여맹이 경제난 이후 복지체계의 조력 조직으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왔는지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⁴⁴⁾

이 분야의 연구들은 북한의 여성 교육 경험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시도한 연구로, 여성주의 시각에서 교육의 성차별 실태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그동안 여맹을 비롯한 사회조직 관련 연구가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여맹원들의 실제 활동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집단주의적 원칙이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 교육과 조직 생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여성의 교육과 조직 생활 경험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43) 안재희·민무숙, “탈북여성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의 교육경험 분석,” 『여성연구』, 제65집(2003), 237~238쪽.

44) 양옥경 외, “지역사회 복지자원으로서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원 역할의 가능성 탐색,”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제15권 2호(2018), 51~52쪽.

7) 여성 지도자와 인물

현재 북한 여성 지도자와 인물 관련 연구의 수행은 쉽지 않다. 이는 정치, 경제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점, 북한 역사서의 대부분이 김일성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 점, 북한 자료에 대한 접근의 한계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의 여성 지도자와 인물을 다룬 여성사 연구는 김정숙과 여성 영웅을 다룬 연구, 여성 지도자 허정숙과 럽형미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김도형(2020)은 북한 중등 역사 교과서에 나오는 여성과 여성 혁명가를 분석하였다. 북한이 주장하는 도덕과 양심이 역사교육에서 이상적인 여성 이미지로 표상되어 현재 북한 여성의 삶에도 투영되고 있다.⁴⁵⁾ 또한 전근대 여성들의 이미지는 근현대 여성인 김정숙에 의해 수렴되어 완성돼 다시 김정숙을 통해 새로운 이상적 여성 이미지로 만들어져 북한 여성에게 확산되고 있다. 저자는 김정숙이 역사적 실체로서 “북한식 슈퍼유먼”으로, 북한 여성이 따라 배워야 할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⁴⁶⁾ 한편 북한 여성이 따라 배워야 할 이상적 모델로 상징화되는 여성 영웅을 분석한 연구는 세 편이다. 김은정(2016)은 북한 최초의 여성 영웅인 조옥희를 형상화한 소설과 혁명열사릉에 안장된 여성 영웅들의 기록을 중심으로 조옥희를 분석하고 있다.⁴⁷⁾ 송현진(2021)은 북한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선군시대에 모

45) 김도형, “북한의 여성과 여성 혁명가에 관한 이미지 연구: 전근대사 및 ‘김정숙’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59집(2020), 326~333쪽.

46) 위의 글, 321쪽.

47) 김은정,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60권(2016), 498~499쪽.

성 영웅이 등장한 배경과 의미를 밝히고 있다. 1996년부터 배출된 ‘모성 영웅’은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모성이라고 강조해 온 담론과 출산정책의 일환이며, 무너진 국가 복지제도의 역할을 여성에게 전가하기 위해 모성 영웅을 발굴해 여성들을 통제하고 있다.⁴⁸⁾ 또한 송현진(2021)은 김정은 체제 여성의 역할과 여성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 영웅의 유형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체제는 여성들을 체제에 결속시키기 위해 여성 영웅을 등장시켜 전문직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성별분업체제와 성별직급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정권이 바라는 여성의 역할은 역사 주체로서 공산주의 혁명가 역할보다는 기존의 성역할과 체제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⁴⁹⁾

한편 신유리 외(2021)는 허정숙의 북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여성으로서 북한에서 많은 제약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 직전까지 북한 정치의 핵심 지도자로 활동한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⁵⁰⁾ 허정숙은 김일성 일가 이외의 여성 중 정치의 핵심 세력으로 가장 오래 정치 활동을 했으며 실력, 사상, 상징성, 처세, 가족적 배경이 북한 사회에서 성공한 요인으로서는 작용했다. 허정숙은 북한뿐 아니라 한반도

48) 대표적인 모성 영웅은 서혜숙, 장정화로 고아를 데려다 키운 평범한 여성들이며, 북한은 여성동맹을 통해 여성들에게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하고 있다. 송현진, “북한 모성영웅의 등장 배경과 의미,”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북한여성, 변화를 이끈다』(서울: 선인, 2021).

49) 송현진, “김정은 체제 ‘여성영웅’ 정치의 유형과 특징: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5권 2호(2021), 67~68쪽.

50) 그동안 허정숙에 관한 연구는 북한에서의 활동에 주목하지 않아 남한에서 저평가되거나 왜곡된 신여성 이미지 위주로 남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신유리·권경미, “허정숙 다시 보기: 북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22집(2021), 43쪽.

여성사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필수적 인물이다. 허정숙이 북한 정권 초기 여성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현실에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의 공헌을 밝힌 중요한 연구이다. 또한 최진이(2006)는 고난의 행군 시기 ‘여성주체’시 창작 활동을 통해 북한 문단에 자신의 위치를 뚜렷이 한 북한의 여성시인 럽형미를 분석하여, 시인의 여성적 의식을 드러냈다.⁵¹⁾

이처럼 북한의 여성 지도자와 인물을 다룬 연구는 그동안 남성 인물 중심의 북한 현대사 연구로⁵²⁾ 점철되어 온 실정 속에서 여성 인물을 중심으로 북한 역사를 서술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동안 북한의 남성 지도자 중심적인 연구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여성 지도자와 인물들의 활약과 역사 속에서의 주체적인 역할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김일성 일가 중심의 북한 역사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 지도자를 비롯한 여성 인물들을 다룬 공헌사 연구가 더 활성화 되길 바란다.

8) 남북한 여성사 비교

남북한의 여성사를 비교한 연구로 두 편의 연구가 있다. 이배용(1997)은 여성사 서술에 대한 남북한의 역사 인식에 대한 기본 관점을 비교하기 위해 시대구분의 차이, 북한의 여성관과 역사의를 밝히고 있다. 또한 여성 교육, 여성운동, 여성 노동, 결혼 및 가족제도와 여성,

51) 최진이, “북한 여성시인 럽형미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52) 이 책에서 서술한 인물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운을 필두로 조만식, 이승엽, 박영빈, 피메노프, 연형묵 등 남성 인물만을 소개한다.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서울: 선인, 2011).

여성 인물에 대한 평가로 유형을 분류해 여성사 서술 태도와 내용을 분석하였다. 남북한 여성사 서술의 특징에 대해 첫째, 해방 이후 역사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⁵³⁾ 둘째, 북한의 『조선전사』는 여성 문제를 역사 속에서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중된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했다. 셋째, 북한은 여성사를 보는 관점이 김일성 가계의 여성이나 피지배계층인 인민대중의 모델로 인물을 부각하는 측면이 강하다.⁵⁴⁾ 그리고 윤택림과 함인희(2005)는 남북한 여성들의 구술생애사를 분석해 여성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집안일과 육아 경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남북한 여성들은 서로 다른 역사적 과정을 밟아 왔기에 일상적 삶은 차이가 있지만, 해방 이전 전통적 가치가 남북한 여성들의 삶을 공통으로 지배하고 있다. 남북한 여성들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구성하는 요소는 동일하지만, 그 내용과 비중은 다르다. 반면 남북한 여성들은 서로 다른 체제에 살았어도 가부장제와 가족주의를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음이 드러났다.⁵⁵⁾

이 분야의 연구들은 그동안 북한의 여성사 서술에 관한 연구가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과 남한의 역사서를 비교하여 북한의 여성사 인식 실상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해방 후 현대사 속에서 남북한 여성들의 삶을 미시적으로 접근해 비교분석 한 연구라

53) 북한은 1926년 이후부터 시기를 항일투쟁기, 현대사의 시작으로 설정해 『조선전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부각하기 위해 강반석과 김정숙을 중심으로 여성에 관한 서술을 하고 있다.

54) 이배용, “여성사 서술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사학연구』, 제53호(1997), 185~187쪽.

55) 윤택림·함인희,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의 이해: 집안일과 육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7집 2호(2005), 3쪽.

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더 다양한 주제의 남북한 여성사 비교 연구가 이루어지면, 남북한 여성의 삶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결론: 북한 여성사 연구의 과제

북한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의 장에서 꾸준히 북한 여성사 연구 성과물이 나오고, 2010년대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북한 여성사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북한 여성사 연구가 전체적인 편수도 적지만, 주제 또한 다양하지 못하다. 북한 여성사 연구는 이제 출발점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북한 여성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이는 북한 여성사 연구를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론화하지 못한 점과 연관이 있다. 셋째, 제약된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북한 여성사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분단 고착화로 북한 사회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북한 역사서를 비롯한 공식 문헌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낮다. 또한 북한 역사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여성의 기억을 이야기해 줄 북한이탈여성이 소수에 불과한 점도 문제이다. 넷째, 여성주의 관점에 기초한 북한 여성사 연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나온 북한 여성사 연구 중 여성주의 시각으로 해석하지 못한 이유는 여성주의 관점을 지닌 학자들만 여성사를 연구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기반을 지닌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학

연구에서 북한 여성 연구가 주변부를 벗어나지 못하듯 북한 여성사 연구는 더 주변부라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북한 여성 연구에서 여성사는 분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북한 여성을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서 여성사를 하나의 연구 주제나 분과로 보고 있지 못함을 반영하며, 북한 여성사 연구자의 정체성 문제로 이어진다. “나는 북한 여성사 연구자”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연구자가 과연 존재하는가? 라는 점은 깊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조영주가 밝힌 북한 여성 연구의 정체 속에서도 2000년대 이후 여성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 북한 여성 연구자’의 등장 때문이라고 한 점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⁵⁶⁾

역사의 주체로서 북한 여성이 살아온 과정을 역사화하는 노력은 앞으로 더욱 진전되어야 한다. 북한 여성은 역사적 실체들이므로 역사적 삶을 살았던 북한 여성들의 얘기를 써야 한다. 북한 여성사의 제대로 된 정착은 배제됐던 여성들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북한 역사의 완성도를 높이고,⁵⁷⁾ 더 나아가 분단된 한반도의 역사를 제대로 쓰는 작업이다. 북한 여성사는 역사가 그렇듯이 끊임없이 구성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참여했지만 기록되지 못한 북한 여성의 활동과 역사적 여성 인물, 일상적 여성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토대로 북한 여성사 쓰기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여성사 관련하여 연구 주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여성사 연구는 한국 여성사 연구를 비롯해 서구의 여성사 연구

56) 조영주, “북한여성연구의 여성주의적 확장 가능성: 북한학과 여성학을 중심으로,” 11쪽.

57) 정현백, “‘여성사 쓰기’에 대한 (재)성찰,” 203쪽.

와 학문적 교류를 통해 만나야 성장할 수 있다. 한국 여성사와 동아시아 여성사를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선행된 연구 주제를 분석해 북한 여성사 연구에 적용하여 연구 주제를 다양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역사 속의 여성 인물, 여성 리더십, 가족과 젠더, 여성의 몸, 섹슈얼리티, 여성의 조직 활동, 여성과 혁명, 여성의 생산 활동, 여성의 일상생활, 여성과 폭력 등 한국 여성사와 서구 여성사에서 연구되는 주제들을 북한 여성사 연구의 새로운 주제로 가져와야 한다.

둘째, 북한 여성사의 이론과 연구 방법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 여성사 연구의 이론적 시각과 방법론을 정립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북한 여성사 연구 성과물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 북한 여성사 연구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동안 진행된 여성사 이론을 검토해 북한 여성사의 이론화 작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여성의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 여성주의 여성사 연구는 그동안 남성 중심의 역사에서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고, 여성의 경험을 여성 중심으로 해석하고 이론화하려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 여성사 연구는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주로 구술사 방법과 담론 분석을 활용해 왔다. 특히 구술사 방법론은 부재한 여성의 기록을 생산하여 사료의 공백을 채울 수 있게 하며, 구술자의 자기 삶에 대한 해석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⁵⁸⁾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연구도 있는 것이 사실이며, 연구자가 구술 상황에 어떻게 개

58) 김은경,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白熱化)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127쪽.

입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구술의 상황적 맥락을 연구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구술자의 삶에 대한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여성사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담론 연구가 가진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 여성 연구에서 여성사 연구가 한 분과로 안착해야 한다. 북한 여성사 연구는 북한학계를 비롯해 여성학계와 역사학계의 제도 내에 자리 잡지 못했으며, 주변화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북한 여성의 경험과 삶의 궤적을 재구성하려는 북한 여성사는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학제 간 연계를 통해 과거의 북한 여성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먼저 북한학계 연구자를 중심으로 여성학과 역사학 연구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며, 각 학문분과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북한 여성사 연구에 참여한 기존 연구자들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학자들은 여성학과 역사학, 사회학, 인류학 등의 성과를 자신의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할 뿐만 아니라 타 학문 분야에서 자신의 연구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에 부지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여성사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북한 여성사 연구의 쟁점을 성찰하고, 학문적 실천성을 높이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주제별 분석을 통해 북한 여성사 연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연구의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살펴본 북한 여성사 연구의 성장을 위한 시론적 논의이다. 이 글이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서 북한 여성사 연구를 공론화하고 연구를 보다 촉진하는 데 얼마간의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8월 7일 / 채택: 8월 9일

참고문헌

1. 국내 자료

1) 단행본

- 김태우, 『냉전의 마녀들: 한국전쟁과 여성주의 평화운동』(파주: 창비, 2021).
- 러너, 거다(Gerda Lerner), 『왜 여성사인가』, 강정하 옮김(서울: 푸른역사, 2006)
- 송현진, “북한 모성영웅의 등장 배경과 의미,” 이화여대 북한연구회 엮음, 『북한여성, 변화를 이끈다』(서울: 선인, 2021).
- 여성한국사회연구소, 『북한여성들의 삶과 꿈』(서울: 사회문화연구소, 2001).
- 이재경·윤택림·이나영 외, 『여성주의 역사쓰기: 구술사 연구방법』(서울: 아르케, 2013).
- 정창현, 『인물로 본 북한현대사: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서울: 선인, 2011).
- 정현백, 『여성사 다시쓰기』(서울: 당대, 2007).

2) 논문

- 곽수진, “북한 여성의 출산 경험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권금상,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국가권력과 여성주체 간의 동학을 중심으로”(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_____, “규범에 경합하는 북한여성들의 성적실천: 고난의 행군 이후 일상에서의 성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제20권(2016), 241~288쪽.
- 김경희·강은애·손명아,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가가부장제의 재생산에 관한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55권 1호(2016), 131~164쪽.
- 김도형, “북한의 여성과 여성 혁명가에 관한 이미지 연구: 전근대사 및 ‘김정숙’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제59집(2020), 321~353쪽.
- 김석향·박민주, “북한 내 재생산 영역의 사회구조와 여성의 실천: 임신·출산 관련 법제와 개인 경험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3집 1호(2016), 99~134쪽.
- 김석향·이은주, “북한여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2호(2012), 229~268쪽.

- 김영선, “1960~70년대 북한의 재생산 정책과 젠더의 문화정치,” 『여성과 역사』, 제 21집(2014), 183~218쪽.
- 김은경, “‘우울한 열정’을 넘어 논쟁의 백열화(白熱化)로: 한국현대여성사 연구의 쟁점과 전망,” 『여성과 역사』, 제19집(2013), 105~141쪽.
- 김은경, “북한의 영웅서사, 60년의 간극: 조옥희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 60권(2016), 475~501쪽.
- 김원홍, “북한여성 연구동향과 향후 과제,” 『정정(政正)』, 제11권 1호(1998), 91~114쪽.
- 김정인, “한국 근대 여성사 연구의 변화 추이와 전망,” 『한국여성학』, 제32권 2호(2016), 185~215쪽.
- 김정화, “젠더사의 정치학: 딜레마와 가능성,” 『역사와 세계』, 제34호(2008), 1~35쪽.
- 김현아, “이동하는 북한 여성의 모성실천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김화순·안지영·함연희, “첫 직장과 결혼: 북한 여성의 직장진출과 진로분화,” 『통일인문학』, 제84집(2020), 183~222쪽.
- 박영자, “북한의 여성노동정책(1953~1980년대): 노동계급화의 수평적, 수직적 위계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2004), 137~161쪽.
- _____,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파괴와 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 제45집 2호(2006), 49~84쪽.
- 박현선, “현대 북한의 가족제도에 관한 연구: 가족의 사회적 재생산과 가족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송현진, “김정은 체제 ‘여성영웅’ 정치의 유형과 특징: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25권 2호(2021), 67~109쪽.
- 스콧, 조운 W.(Joan W. Scott), “젠더와 정치에 대한 몇가지 성찰,” 배은경 옮김, 『여성과 사회』, 제13호(2001), 210~249쪽.
- 신유리·권경미, “허정숙 다시 보기: 북한에서의 삶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22집(2021), 41~79쪽.
- 안재희·민무숙, “탈북여성성을 통해 본 북한 여성의 교육경험 분석,” 『여성연구』, 제65집(2003), 211~244쪽.

- 안지연, “김정일 시기 이후 북한의 ‘인구재생산’과 영화 속 모성담론,” 『여성연구』, 제88권 1호(2015), 43~81쪽.
- 안태윤,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 전쟁동원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0호(2014), 181~216쪽.
- _____, “한 엘리트 북한 여성의 생애사로 본 분단체제 하의 여성의 삶과 가족의 생존 전략,” 『여성과 역사』, 제22권(2015), 235~274쪽.
- _____, “전후 북한 여성의 삶과 탈북의 전략적 선택,” 『여성과 역사』, 제24권(2016), 187~219쪽.
- 양옥경·이민영·최혜지·김선화·김성남·김학령, “지역사회 복지자원으로서 조선민주 여성동맹(여맹)원 역할의 가능성 탐색,”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제15권 2호(2018), 51~52쪽.
- 윤택림·함인희,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의 이해: 집안일과 육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제17집 2호(2005), 3~32쪽.
- 이미경, “북한의 모성이데올로기: 『조선여성』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6집 1호(2004), 389~419쪽.
- 이배용, “여성사 서술에 대한 남북한 비교 연구,” 『사학연구』, 제53호(1997), 155~188쪽.
- 이지연, “초국적 공간에서 북한 여성의 노동과 재현의 정치: 젠더, 인종, 계급의 교차와 ‘북한적인 것’의 구성,” 『한국여성학』, 제39권 1호(2023), 137~170쪽.
- 임순희, “북한여성연구체험기: 북한여성 연구동향과 연구의 한계,” 『북한』, 제269호(1994), 156~163쪽.
- 정현백, “‘여성사 쓰기’에 대한 (재)성찰,” 『역사교육』, 제102집(2007), 163~206쪽.
- 조영주, “북한 여성의 실천과 젠더레짐의 동학”(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_____, “북한의 시장화와 젠더정치,” 『북한연구학회보』, 제18권 2호(2015), 95~122쪽.
- _____, “북한이탈여성의 구술전략과 담론적 수행: 어머니되기 경험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9권 1호(2015), 309~338쪽.
- _____, “북한여성연구의 여성주의적 확장 가능성: 북한학과 여성학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35집 1호(2018), 3~37쪽.

- 조정아, “김정은 시대 북한 여성의 노동과 직업,” 『KDI 북한경제리뷰』, 7월호(2020), 39~54쪽.
- 천성림, “새로운 여성사: 쟁점과 전망,” 『역사학보』, 제200집(2008), 131~164쪽.
- 최진이, “북한 여성시인 럽형미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함인희, “북한여성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연구』, 창간특집호(1998), 33~55쪽.

Historicizing the Life of Women in North Korea: Trends and Challenges in Research on Women's History in North Korea

Song, Hyeon Jin (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the research trends in North Korean women's history conducted in domestic academia by subject, revealing the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future tasks of research. Research on women's history in North Korea includes topics such as the Korean War and women's experience, women's labor and professional life, the state and motherhood and reproduction, women's sexuality, women's education and organizational life, women leaders and figures, and comparison of women's history in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research methods, studies were conducted by analyzing women's oral history and discourse. It is an achievement that North Korean women's history research results are coming out in various fields, centered on North Korean academia. However, the overall number of studies is small, subjects are not diverse, the theory and methodology are poor, and the entire history needs to be understood with limited research

data. While history based on a feminist perspective is appearing, its deficiency itself is a limitation. Therefore, research topics need to be expanded, theories and research methods further refined, and the study of women's history established as a branch within the study of women in North Korea. This article provides an introductory discussion for the growth of research on women's history in North Korea, and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can serve as basic data to guide future research.

Keywords: North Korean women's history research, research trends, research achievements, research limits, research issues